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소식지 제1호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추진본부

1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동행이란?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은 대한민국 사회 화합을 목표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봉사 및 인식 개선, 갈등 해소 활동을 펼치는 대국민 운동이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대, 지역, 성별, 이념 등의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전반의 화합을 이루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의 사회 갈등과 분열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유수의 리서치 전문기관의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사회 갈등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 분열은 국민 간의 신뢰와 연대감을 약화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이에 2024년 1월, 전국 10개 지역의 ‘평화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단체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50회의 토론회와 강연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평화실천위원회는 대한민국 사회 화합의 실마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는 공감대에 도달했다.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은 이러한 인식에서 2024년 7월부터 시민이 주인공이 된 사회통합 운동을 시작하였다.

캠페인 목표 및 비전

세대를 잇다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의 소통을 촉진하는 ‘세대를 잇다’ 프로그램은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상호 이해를 도모한다. 다양한 세대의 각기 다른 경험과 에너지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원동력이다. ‘동행’은 세대 간 활발한 소통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간다.

문화를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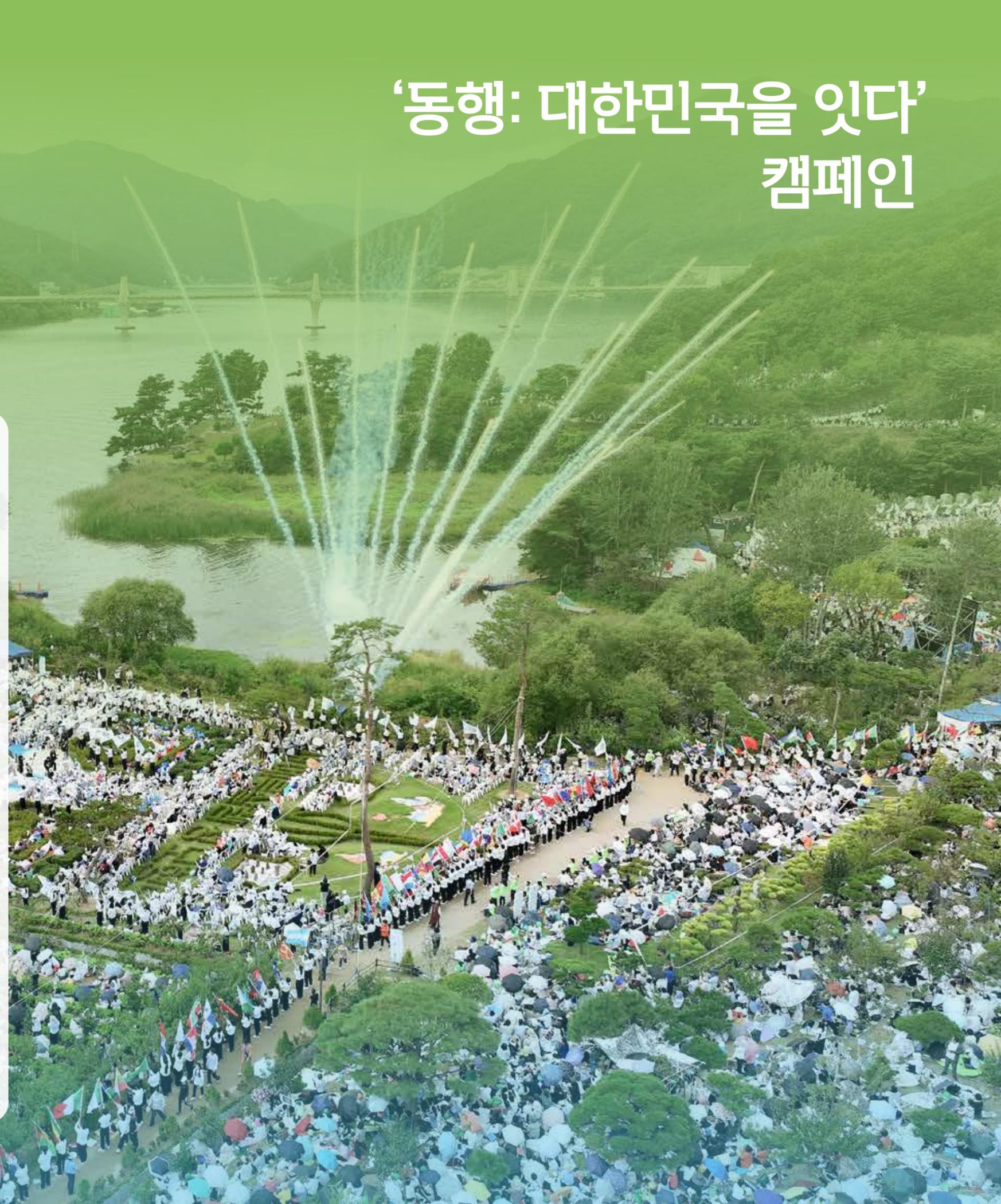
‘문화를 잇다’ 프로그램은 급증하는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한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개성이 함께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다문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목표로 한다.

미래를 잇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환경 교육, 생태계 보전 활동, 재활용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 의식을 고취한다.

민족을 잇다

‘민족을 잇다’ 프로그램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목표로, 남북 간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문화 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발대식

대한민국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회 화합 캠페인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의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발대식에서 HWPL 대표는 캠페인 추진위원회장을 임명하며 캠페인 출범과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캠페인 추진위원장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현장에 참석한 추진위원회와 캠페인 참여 회원들은 깃발을 흔들며 동행 캠페인의 공식적인 출범을 환영하였다.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발대식 선언문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발대식 선언문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 동안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이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새마을운동'과 '금 모으기 운동' 등, 커다란 위기 때마다 전국민이 단결하여 이를 극복해 왔다.

그러나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대립, 이념과 종교의 분열 등 깊은 갈등과 불신이 만연하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다시 한번 단결하여 갈등과 분열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세대를 잇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대 간 간극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상호 이해를 도모한다.

둘째, 우리는 문화를 잇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셋째, 우리는 미래를 잇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후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

넷째, 우리는 민족을 잇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평화와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이다. 우리는 남북 간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준비한다.

네 가지의 핵심 목표와 함께,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길의 시작을 선언한다.

2024년 9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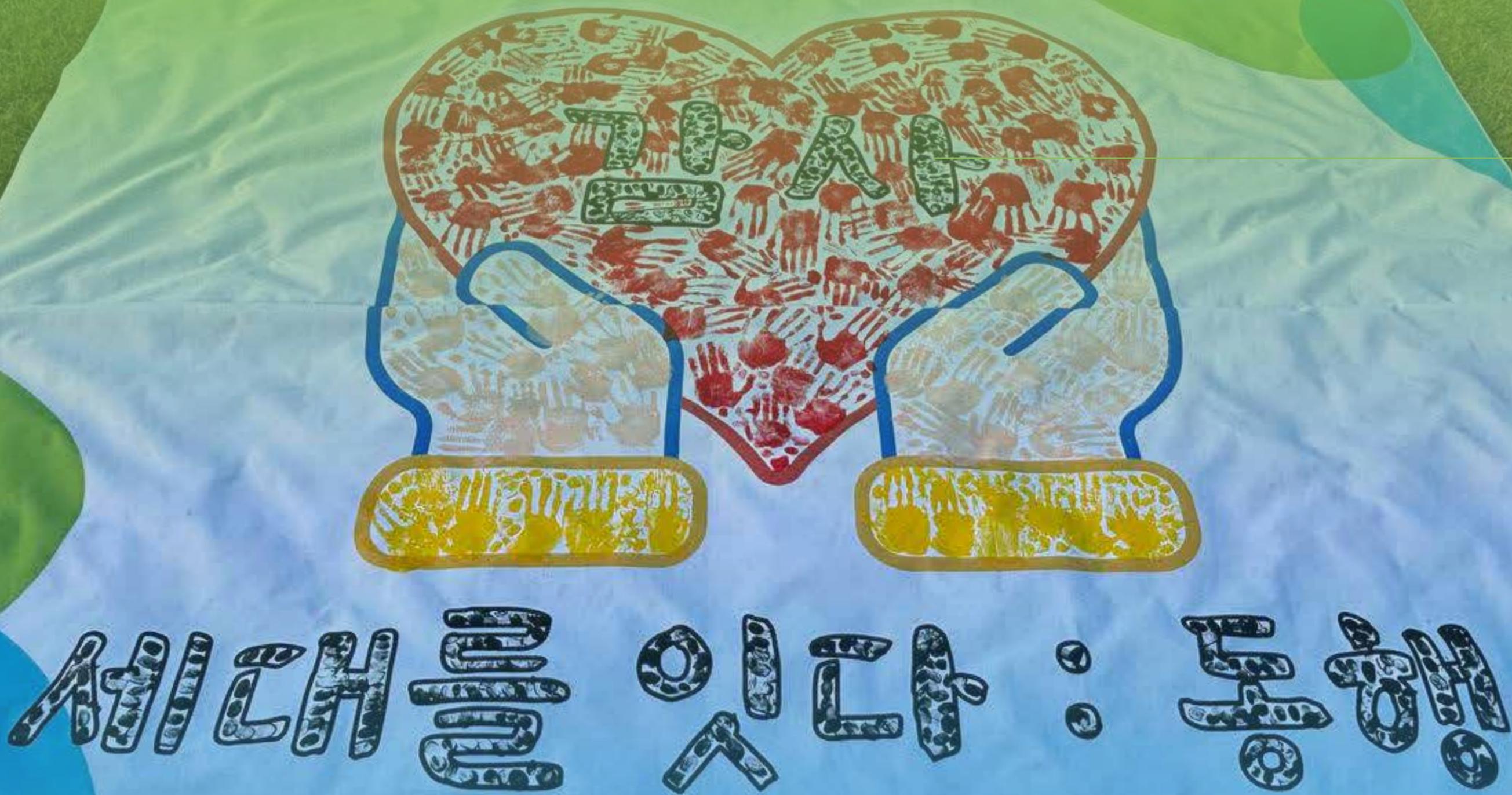
캠페인 추진본부장 김동희 및 20개 권역별 추진 위원회 일동





2

지역 별 발대식 및 활동



1

서울경기남부 활동

지구를 안아주세요! 절박한 환경보호의 외침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10월 09일 13~17시
- ▶ 행사 장소: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
- ▶ 주최/주관: HWPL & (재)지구힐링문화재단 / 동행캠페인 추진위원회
- ▶ 참여 대상 및 규모: (재)지구힐링문화재단, (주)무예도보통지남한산성전통무예, (사)도전월드봉사단중앙회, 평화실천위원회 서울경기남부지부 등 4개 단체와 서울 시민 총 1,863명 참여
- ▶ 행사 내용: “지구를 안아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구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라는 주제로 ET(Embracing the Earth)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장에는 자연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생활 속의 환경보호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를 마련하였다. 지구힐링문화부스, 지구힐링올림픽, 지구랑나랑동행, 지구야아프지마, 자연을였다, 건강힐링부스, 지구지킴이전통무예 등의 부스를 운영하여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절실함을 알리고, 여러 환경보호 방법을 선보였다.



2

전라남도 활동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동행 캠페인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10월 12일 10:30~12:00
- ▶ 행사 장소: 전라남도 담양 담양문화회관
- ▶ 주최/주관: HWPL 동행 캠페인 추진위원회, 평화실천위원회, (사)광주광역시장애인협회 광산지회, 호남일보, 한민족문명진흥원, 한국역사영토재단 공동
- ▶ 참여 대상 및 규모: 지역 사회 지도층과 각계 인사, 단체장 등 총 700명 참석
- ▶ 행사 내용: 지역 인사들과 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동행 캠페인 출범과 활동 내용을 알렸다. 또한 동행 캠페인에서 한경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설명하고, 현장에 참석한 단체들과 MOU를 체결하였다.



3

경상남도 활동

사찰에서 열린 평화콘서트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10월 1일 11시
- ▶ 행사 장소: 경상남도 밀양 태극사
- ▶ 주최/주관: HWPL, 동행캠페인 추진위원회, 평화실천위원회, 태극사 공동
- ▶ 참여 대상 및 규모: 10개 지역 단체를 비롯하여 부산경남 지역 사회지도층과 종교인 총 60명
- ▶ 행사 내용: '대한민국을 잇는 평화콘서트'를 열어 평화의식을 고취하고 지역과 시민들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HWPL의 평화 운동을 지지하는 태극사가 행사 장소로 사찰을 제공하여 종교 간 협력, 지역 간 협력의 의미에 크게 부합하는 뜻깊은 자리를 완성하였다.





4

부산동부 활동

고독사 방지! 함께 해요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9월 28일, 10월 1일, 5일, 12일 등 총 4일
- ▶ 행사 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역 일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서면 세미나홀
- ▶ 주최/주관: HWPL & 돌고래캠페인 추진위원회 / 평화실천위원회 부산울산경남지부
- ▶ 참여 대상 및 규모: 11개 지역 단체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종교계 및 교육계 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총 883명 참석
- ▶ 행사 내용: 고독사 방지와 문화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지역 인사들과 시민들을 초청하였다. 동행 캠페인 회원들은 해당 지역 시민들을 만나 고독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홍보하였다.



대구광역시 활동

외국인 평화 축구대회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9월 21일
- ▶ 행사 장소: 제주시 사라봉 축구장
- ▶ 주최/주관: 동행 캠페인 추진위원회, 네팔FC 공동
- ▶ 참여 대상 및 규모: 제주시 주재 외국인 축구팀 6개팀의 선수들과 지역 인사 등 총 135명 참석
- ▶ 행사 내용: 동행 캠페인 회원들은 제주 내에 HWPL과 동행 캠페인을 홍보하고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교류하기 위하여 축구 친선경기를 지원했다.



지역 사회 갈등 해결에 나선 동행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10월 12일 14:00~15:30
- ▶ 행사 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낙동강승전기념관
- ▶ 주최/주관: HWPL, 평화실천위원회 대구경북지부, 한국산림보호협회중앙회 공동
- ▶ 참여 대상 및 규모: 40개 지역 단체와 대구경북 지역의 사회지도층 및 종교계 인사 등 총 180명
- ▶ 행사 내용: 대구경북 지역의 동행 캠페인 발대식을 열어 지역의 여러 단체와 인사들에게 동행 캠페인 출범을 알리고 지역 화합과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였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필요한 네 가지 주제를 두고 발제가 진행되어, 동행 캠페인이 대구경북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단체장 및 인사들은 동행 캠페인을 지지하며 적극 참여할 것을 밝혔다.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보존을 위한 동행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9월 14일
- ▶ 행사 장소: 포항 송도여신상 ~ 영일교 누각
- ▶ 주최/주관: HWPL, IPYG 공동
- ▶ 행사 내용: 봉사 회원 80명이 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해안선 산책로를 찾아 쓰레기를 줍고 환경 정화 운동을 펼쳤다.



강원특별자치도 활동

전통의 계승과 지역 일손 도움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10월 6일
- ▶ 행사 장소: 충주 중앙탑 사적공원
- ▶ 주최: 충주불교사암연합회, 심바라밀보존회 공동
- ▶ 행사 내용: 동행 캠페인 회원 총 43명이 충주 중앙탑 일원에서 열린 '제33회 중앙탑 탑돌이 국태민안 문화축전'에 참여하여 물품 운반, 음식 봉사, 철거, 환경 정화 등의 활동으로 봉사했다. 33년을 이어 전통 문화와 의식을 계승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 동참한 동행 회원들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이 동행 캠페인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하여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동행 회원들은 환경의 보호와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를 성심껏 펼쳐 충주의 정계 인사들과 지역 시민들에게 동행 캠페인을 크게 홍보했다.



서울경기북부 활동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10월 12일
- ▶ 행사 장소: 고양시 재향경우회 교육장
- ▶ 주최/주관: 고양시 줌센터, 사회정의실현시민연대 공동
- ▶ 참여 대상 및 규모: 지역 사회 인사를 비롯하여 총 132명 참석
- ▶ 행사 내용: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구축 포럼]을 열고 지역 인사들과 지식인, 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동행 캠페인 출범과 활동 취지를 알렸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과 지식인들은 동행 캠페인 취지에 크게 공감하고 캠페인의 실질적인 사업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경기서부 활동

골목 상권 살리기, 동행이 간다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10월 19일 14시
- ▶ 행사 장소: 서울 롯데시티호텔 구로 에메랄드룸
- ▶ 주최/주관: HWPL, 평화실천위원회 서울경기서부 / 전국기자협회
- ▶ 참여 대상 및 규모: 골목상권 상인과 협력단체 대표 등 총 70명 참석
- ▶ 행사 내용: 동행 캠페인 서울경기서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관련 단체 인사들을 초청하였다. 발대식은 '세대를 잇다: 이음'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는데, 참석한 소상공인들과 관련 인사들은 동행 캠페인의 취지와 목표에 크게 공감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고, 함께 동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인천광역시 활동

인천과 대한민국을 위한 '동행'에 동참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10월 17일 15시
- ▶ 행사 장소: 인천광역시 동구 보훈회관 다목적실
- ▶ 주최/주관: HWPL, 동행 추진위원회 / 6.25 참전용사 동구지회, 새한장학회
- ▶ 참여 대상 및 규모: 인천 지역인사들과 시민 등 총 307명 참석
- ▶ 행사 내용: 동행 캠페인 인천지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해당 지역의 인사들과 시민들을 초청하였다. 캠페인 추진위원회는 발대식에서 인천 지역 내에서의 평화 활동의 의미와 포부를 밝혔고 참석자들은 인천과 대한민국을 위한 취지에 공감했다. 한편, 6.25 참전용사 동구지회는 평화에 대한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HWPL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충청남도/대전광역시 활동

환경보호도, 봉사 활동도 지역공동체와 동행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10월 19일 15시
- ▶ 행사 장소: 충청남도 금산군 압수마을 둔치 캠핑장
- ▶ 주최/주관: (사)지구촌환경지킴이국민운동본부 / 동행 추진위원회, 평화실천위원회 대전충청지부, 감돌고기 문화마당, 금산환경교육센터 공동
- ▶ 참여 대상 및 규모: 대전충청 지역의 5개 단체와 지도층 인사 및 금산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총 504명 참석
- ▶ 행사 내용: 환경을 보호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목표로 전국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지구촌환경지킴이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HWPL과 지역 단체들이 주관하여 '금강 환경 음악회'를 열었다. 지역 거점의 화합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행 캠페인의 취지를 살린 이번 행사는 여러 민간 봉사 단체들과 지역공동체, 마을협의회가 협력한 결과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전·충청 호국보훈 동행캠페인 설명회 및 간담회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8월 26일
- ▶ 행사 장소: 대전시 라미컨벤션
- ▶ 주최: 평화실천위원회 대전충청지부, (사)호국불교승병단,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대전광역시총연합회 공동
- ▶ 주관: 평화실천위원회 대전충청지부, 호국불교문화예술보존회, 청년GO 공동
- ▶ 참여 대상 및 규모: 대전충청 지역 인사와 청년들 총 151명
- ▶ 행사 내용: '대전충청 호국보훈 동행캠페인'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고 동행캠페인의 취지와 의미, 활동 방향 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대전충청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인사들과 문화예술인, 청년들이 참석하여 동행캠페인에 공감하고 활동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 및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경기동부 활동

평화와 화합의 울림터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10월 5일
- ▶ 행사 장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평화울림터
- ▶ 주최/주관: 동행 캠페인 추진위원회 / 평화실천위원회 서울경기동부지부, 평화문화원 공동
- ▶ 참여 대상 및 규모: 지역 단체장과 언론 및 시민 총 515명
- ▶ 행사 내용: 지역 시민들과 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문화축제를 열었다. '세대를 잇다: 동행'의 그림에 스티커를 붙여 대형 현수막을 완성하는 이벤트와 축하 공연, 세대별 대표 시민 발제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 활동

21개 지역 단체와 MOU 체결

- ▶ 진행 일자(기간): 2024년 10월 22일 14시
- ▶ 행사 장소: 전주시 한국 전통문화의 전당
- ▶ 주최/주관: HWPL 동행 추진위원회, IPYG 공동
- ▶ 참여 대상 및 규모: 21개 지역 단체와 사회 인사를 비롯하여 총 350명 참석
- ▶ 행사 내용: 지역 단체들과 인사들을 초청하여 동행 캠페인 발대식을 열고 캠페인 활동과 목표를 홍보하였다. 특히 이번 발대식에서는 21개 지역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꾸준하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알렸다.



우리도 '동행' 했어요

참여 국민들의 한 마디

급속한 가족 해체로 인한 예절문화 결핍이 고독사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고래 캠페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제32대 성균관장)

HWPL 회원들이 하나되어 질서있게 움직이는 활동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HWPL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먼 곳까지 많은 스님들이 참석하시어 평화 행사에 동조하시는 것과 먼 거처서(밀양까지 와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여 협조하신 모습이 모두가 감동적입니다.

이승철(국사편찬사로 조사위원)

이런 캠페인은 당연히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산시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허태조(‘사단법인 한국산림보호협회중앙회’ 회장)

HWPL 회원들이 조직적인 활동과 홍보 영상을 통해서 설립 목적과 활동내용을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되고 동행이라는 캠페인의 목적을 잘 전달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홍(전국기자협회 회장)

많은 분들이 참여할 만큼 구성이 잘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평화실천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중문(도전월드봉사단중앙회 회장)

이 시대에 필요한, 니즈가 명확했던 행사였습니다. 동행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인천에 있어지는 많은 부조리들을 해결하고 세대와 역사를 이을 수 있는 훌륭한 행사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평화실천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고정적인 사업들을 많이 연계하고 싶습니다.

홍성욱(새한장학회 이사장)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도록 선뜻 장소를 내어주신 태극사주지스님께 감사합니다. 동행 캠페인을 통해서 사는 곳도, 직업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되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윤은총(HWPL 국내 03지부 회원)

동행 캠페인으로 지역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리라 봅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저도 3.1운동의 정신을 이어서 사회 화합을 이루는 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김규재(‘사단법인 3·1정신보국운동연합’ 이사장)

우비를 입고 참석했음에도 불편하지 않았고 매순간 호응하며 기쁘게 참석하였습니다. 평화의 일에도 도움 요청시 함께 돕겠습니다.

홍성현(우리문화선양회 지부장)

동행 캠페인의 취지에 맞게 함께 하겠으며 HWPL이 추진해 온 실천의 힘과 함께 세대와 문화를 잇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성영열(전북연합신문 편집국장)

HWPL이 보여줬던 봉사자들의 모습은 다른 단체와는 확실히 다르고, 우리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HWPL과 끝까지 동행하고 싶습니다.

류서호(6·25 참전용사 동구지회 지회장)

‘세대를 잇다 : 이음’이라는 타이틀로 시작 된 캠페인 첫 발대식에 직접 참석해 보니 큰 감동이 됐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느꼈으며, 앞으로 이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송우(경기과학기술대 교수)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10주년을 축하하며, 한글이 세계 1등이 되는 그 날까지 HWPL의 회원들과 함께 가치 있는 사업에 동행하겠습니다.

심의두(‘사단법인 한글세계화운동본부’ 총재)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